

경제교육연구
제18권 2호(2011. 12), pp.45-57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 분석

한 경 동* · 장 경 호**

【요약문】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년도(2008년) 자료에서 조사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해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로짓 회귀모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할수록, 사교육을 받는 경우,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 지역이 시 지역인 경우가 읍면 지역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 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로짓 회귀분석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게 하는 유의한 설명변수는 성별, 사교육 여부, 거주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분류】 경제교육

【주제어】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경제 교육, 한국교육고용패널, 성취감, 로짓 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khahn@hufs.ac.kr)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kjang@inha.ac.kr)

I. 머리말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 수준의 시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2005학년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범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목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속해 있는 사회탐구 영역 시험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상황 등을 소재로 제시하고,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회과학적 탐구 능력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사회탐구 영역 시험은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학문을 수학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탐구 능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윤리, 역사, 사회, 지리 계열의 교과를 통해서 함양해야 할 민주 시민의 자질을 측정한다. 사회탐구 영역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은지용 외, 2004).

고등학교에서 경제는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이 과목은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토대로 하여 소비자, 생산자로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 구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한 과목으로서, 이를 위하여 내용 구성과 학습 방법의 근간을 합리적 의사 결정에 두고, 학습자의 인식 능력에 맞는 내용 선별과 수준 조정, 우리 경제 현실의 이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이론 원용 등을 통한 학습 경험의 의미 제고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통계 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아 그리 많지 않다. 이의영·김현철(2001)에서는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자료를 이용해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 분석을 하였다. 특히 200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과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서 세계지리 12.99, 세계사 11.79, 정치 10.96, 사회·문화 10.37, 경제 10.13으로 경제 과목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로 어렵게 출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안병근(2010)은 2008년 2학기 전국의 4개 교육대학교의 1학년 학생 7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과목을 좋아할수록,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수록 경제를 더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년도(2008년) 자료에서 조사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사용하여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한 후 향후 경제교육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II.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은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 2,000명을 추출하여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있다. 모집단은 2004년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며, 표본은 1단계에서 전국을 지역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 2단계에서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학교를 선정한 후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특히 4차년도(2007년)에는 전문계고, 과학고, 외국어고 학생 1,500명을 패널에 추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4차년도와 5차년도(2008년)의 설문 문항과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5차년도에 조사된 2,685명의 표본에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1,014명이며, 이 중 사회탐구 성적이 조사된 학생 639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정보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수능 성적 취합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부터 일괄적으로 취합한 것이다.

2. 변수 및 분석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특성과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경제를 선택한 학생(145명)과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494명)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등급 성적을 비교 검토한다. 또한 성별, 고등학교 성적 등급, 학교 유형, 사교육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성취감 등의 개인 특성과 월 평균 가구 소득, 가정생활 만족도, 거주 지역 등의 가족 특성 차이를 분석한다.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 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로짓 회귀분석에 사용한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¹⁾

$$\ln\left(\frac{p(y)}{1-p(y)}\right) = \alpha + \beta'x + \epsilon$$

종속변수 y 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y = \begin{cases} 1 & \text{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한 경우} \\ 0 & \text{그렇지 않은 경우} \end{cases}$$

모형의 우변에서 α 는 상수, x 는 설명변수의 벡터로 성별, 고등학교 성적 등급, 학교 유형, 사교육 여부, 학교생활 만족도, 교과 성취감 등의 개인 특성과 월 평균 가구 소득, 가정생활 만족도, 거주 지역 등의 가족 특성, β 는 계수의 벡터, ϵ 은 랜덤오차이다.²⁾

III. 분석 결과

1.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선택 학생의 특성 분석

-
- 1) 종속 변수가 선택 여부를 나타내는 1 또는 0의 값을 가질 경우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정된 확률 값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등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의 가정을 충족하지 않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와 같이 로짓(logit) 모형이나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Greene (2003)을 참조할 수 있음.
 - 2) 변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분석 결과를 참조.

가. 영역별 수능 성적 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 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 145명과 그렇지 않은 학생 494명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등급 성적은 <표 1>과 같다.³⁾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등급이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보다 나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언어 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평균 4.00 등급인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은 평균 4.57 등급이었으며, 수리 영역에서는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평균 3.93 등급, 그렇지 않은 학생이 평균 4.75 등급, 외국어 영역에서는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평균 3.86 등급, 그렇지 않은 학생이 평균 4.60 등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경제 선택 여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 차이

영역	선택함 (n = 145)	선택하지 않음 (n = 494)	t	p 값
언어	4.00 (1.95)	4.57 (2.05)	3.051	0.003
수리	3.93 (2.02)	4.75 (2.08)	4.204	0.000
외국어	3.86 (2.10)	4.60 (2.04)	3.798	0.000

주 : ()안은 표준편차임.

나. 개인 및 가족 특성 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개인 및 가족 특성을 비교 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 성적 등급⁴⁾, 학교생활 만족도⁵⁾, 학교 유형, 사교육 여부, 교과 성취감⁶⁾을, 가족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월 평균 가구소득, 가정생활 만족도⁷⁾, 거주 지역을 사

- 3) 2008년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로 발표되었으며 표준 점수나 백분율은 제시되지 않았음.
- 4) 1~9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주석 2)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과 같은 기준을 따름.
- 5)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됨.
- 6) ‘○○ 과목을 잘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됨
- 7) ‘현재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용하였다.

<표 2> 경제 선택 여부에 따른 학생의 특성

		선택함 (n = 145)	선택하지 않음 (n = 494)	χ^2/t	p 값	
개인 특성	성별	남	69 <28.4>	174 <71.6>	7.271	0.007***
		여	76 <19.2>	320 <80.8>		
	성적 등급		3.70 (1.292)	3.96 (1.278)	-2.137	0.034**
	학교생활 만족도		3.50 (0.846)	3.38 (0.851)	1.445	0.150
	학교 유형	일반고	103 <22.1>	364 <77.9>	0.400	0.527
		외국어고	42 <24.4>	130 <75.6>		
	사교육 여부	예	120 <26.1>	339 <73.9>	11.069	0.001***
		아니오	25 <13.9>	155 <86.1>		
	교과 성취감	국어	3.09 (0.935)	3.18 (0.825)	-1.075	0.283
		수학	2.70 (1.137)	2.36 (1.092)	3.223	0.001***
영어		3.04 (0.949)	2.98 (0.960)	0.708	0.480	
사회		3.48 (0.791)	3.45 (0.890)	0.381	0.704	
가족 특성	월 평균 가구 소득 ³⁾		5.931 (0.550)	5.785 (0.577)	2.787	0.006***
	가정생활 만족도		3.75 (0.854)	3.81 (0.868)	0.666	0.506
	거주 지역	시 지역	137 <25.7>	397 <74.3>	16.272	0.000***
		읍면 지역	8 <7.6>	97 <92.4>		

- 주: 1) p 값은 '경제 선택과 비선택의 특성이 같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검정 값임.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로그 변환 값임.
 4) < >안은 구성비(%), ()안은 표준편차임.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 의해 측정됨.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성별, 학교생활 만족도, 사교육 여부, 수학 교과에 대한 성취감이, 가족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월 평균 가구소득과 거주 지역이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개인의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중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28.4%로 여학생 19.2%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 과목을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성적 등급은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평균 3.70 등급인 반면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3.96 등급으로 나타나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 과목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생활 만족도와 일반고/외국어고 학교 유형에 따른 경제 선택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사교육 여부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중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26.1%로 그렇지 않은 학생 13.9%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고 사교육을 받았던 경험도 많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⁸⁾ 또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 주요 교과목 중 수학 교과에 성취감만이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수학 교과에 대한 성취감이 평균 2.70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 2.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에 비해 수학에 높은 성취감을 보이는 학생이 경제 과목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 특성에 따라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가정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거주 지역의 경우에는 시 지역 학생 중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25.7%로 읍면 지역 학생 7.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선택 요인에 대한 분석

고등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선택이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 관계 등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짓 회귀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8) 성낙일·홍성우(2008)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일수록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 선택의 로짓회귀분석 결과

		모형 1 (n = 639)	모형 2 (n = 639)	모형 3 (n = 639)	
개인 특성	성별	0.498**	0.515***	0.571***	
	성적 등급	-0.141	-0.088		
	학교생활 만족도	0.177			
	고등학교 유형	-0.070			
	사교육 여부	0.655**	0.596**	0.807***	
	교과 성취감	국어	-0.147		
		수학	0.146	0.141	
		영어	-0.088		
사회		-0.055			
가족 특성	월 평균 가구소득	0.321*	0.210		
	가정생활 만족도	-0.248**		-0.145	
	거주 지역	-1.192***	-1.181***	-1.273***	
상수		-2.240*	-3.008***	-1.388***	
모형의 설명력 검정		$\chi^2_{(12)} = 50.89$	$\chi^2_{(6)} = 42.64$	$\chi^2_{(4)} = 37.45$	
Hosmer-Lemeshow 검정		$\chi^2_{(8)} = 9.10$	$\chi^2_{(8)} = 9.87$	9.36	

-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모형의 설명력 검정은 '귀무가설: $\beta_1 = \dots = \beta_n = 0$ '에 대한 검정을 의미함.
 3) Hosmer-Lemeshow 검정은 '귀무가설: 종속변수의 관측값=예측값'에 대한 검정으로 로짓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말해줌.

설명변수로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한 더미(dummy) 변수이며, 고등학교 성적 등급은 1~9등급을 나타낸다. 학교 유형은 일반고를 0,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1로, 사교육 여부는 '예'를 1, '아니오'를 0으로

한 더미 변수이다.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성취감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등 4개 교과목에 대해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척도에 따라 부여된 점수(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자료로 활용하였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척도에 따라 부여된 점수(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가족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로그값으로 변환하였으며, 가정생활 만족도는 ‘현재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척도에 따라 부여된 점수(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거주 지역은 시 지역을 0, 읍면 지역을 1로 한 더미 변수이다.

<표 3>에서 모형 1은 <표 2>의 모든 변수를 설명변수로 종속변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선택의 여부에 대해 로짓 회귀 분석한 결과이며, 모형 2는 <표 2>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것이다. 모형 3은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설명변수로 분석한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모형 1, 모형 2, 모형 3은 모형의 설명력 검정과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과 적합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모형 3의 분석 결과, 세 모형은 설명변수의 부호와 유의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석 결과를 모형 3을 통해 살펴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의 특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 요인들은 성별, 사교육 여부, 거주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그리고 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및 외국어 등급이 우수하게 나타난 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경제 과목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 과목을 더 선호한다거나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교과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경제 과목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경제 교육과정이 다

소 수리적인 추론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게 된 요인을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교육 여부와 거주 지역의 차이가 경제 선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 교육과정이 다른 과목에 비해 다소 어렵게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경제 교육과정이 질적으로 수준이 높거나 양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구성되면서 상당수의 고등학생이 경제 과목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2010년에 24.2%로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인 55.8%보다 크게 낮다. 특히, 지역별로 경제 과목 선택한 학생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중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제주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사회탐구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2005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 나머지 11개 지역의 선택률은 낮아지고 있는 데서도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강원 지역의 경제 과목 선택률이 2005년 16.0%에서 2010년 3.8%로 하락하여 서울 지역의 1/10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⁹⁾ 이러한 특징들은 경제 교육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과정을 이론보다는 일상생활과 결부된 내용으로 구성하는 한편 경제 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여건 측면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V. 맺음말

한국교육고용패널 5차년도(2008년) 자료에서 조사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해 사회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로짓 회귀모형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성

9)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인문, 예술, 체육, 외국어, 과학 및 국제 고등학교가 포함되었으며 각 과목을 선택한 학생 수는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의 합계를 이용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2005, 2010)의 교육통계연보를 참조할 수 있음.

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우수할수록, 사교육을 받는 경우,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 지역이 시 지역인 경우가 읍면 지역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 탐구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로짓 회귀분석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게 하는 유의한 설명변수는 성별, 사교육 여부, 거주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교육의 성과를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통계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의 확보는 물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정보를 설문 형식으로 수집하지 않고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취합한 자료를 활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의 성적, 즉 경제 이해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고용패널이 추적 조사 자료라는 점에서 경제 이해력을 중심으로 경제 교육의 장기적 효과를 측정하는 추가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성낙일·홍성우(2008).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10권 3호. pp. 183-212.
- 안병근(2010). “대학대입 수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교육연구』, 7호. pp. 1-16.
- 은지용·진재관·김성준·이진희·박영경(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사회탐구 영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의영·김현철 (2001). “2000학년도 경제과목 대입수능시험의 검사 및 문항특성 분석”, 『경제교육연구』, 7호. pp. 263-283.
- 한국교육개발원 (2005). 『교육통계연보』.
- _____ (2010). 『교육통계연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한국교육고용패널』.
- _____ (2006). 『한국교육고용패널』.
- _____ (2007). 『한국교육고용패널』.
- _____ (2008). 『한국교육고용패널』.
- _____ (2009). 『한국교육고용패널』.
- _____ (2010). 『한국교육고용패널』, <http://keep.nhrd.net/jsp/index.jsp>.
- Greene, W. H. (2003). *Econometric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Select Economics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Kyungdong Hahn* · Kyungho Ja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ho select economics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using 5th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data from logistic regression models. From the descriptive analysis we found that male, urban, or richer students tend to select economics more than female, rural, or poorer students, respectively. We also found that economics is preferred to students with higher GPA, especially for mathematics, or with experiences for private lessons.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indicates the gender, private lessons and residential location are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s students to select economics for CSAT.

Key Words : Curriculum,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ocial Studies, Economic Education,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Achievement, Logit Analysis

원고접수: 2011년 9월 3일 심사일: 2011년 10월 31일 ~ 2011년 11월 26일
게재확정: 2011년 12월 10일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Inha University.